

봄맞이 준비하세요

롯데백 광주점 15일까지 봄 정기세일

인기 브랜드 10~50% 할인·홈 인테리어 초대전 비비안 란제리 대전 등 대형 행사도 다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5일까지 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정기세일은 날씨에 맞춰 겨우봄 시즌 상품 수요가 늘어난다는 분석에 따라 예년과는 달리 1주일 정도 늦춰 진행된다

이번 정기세일 기간에 40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 최고 인기 상품인 장원급제 수호랑 인형을 300명 한정 선착순 증정한다

또한 오직 롯데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기가이템도 별도로 준비되었다. 우선 블랙마틴잇팅 매장에서는 롯데백 화점과 콜라베이션한 스니커스 5종을

9만9천원에 판매하고 가이거에서는 시계&팔찌 세트를 100세트 한정으로 15만9천원에 만나볼 수 있다

줄서기 상품전도 준비되어 있다. 맨잇 슈트 바지를 50명 한정으로 2만원에, 예작 셔츠 3종세트를 50명 한정으로 5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세일기간에 맞춰 9층 행사장에서 홈 인테리어 초대전을 진행한다

다우닝 가구는 20% 할인된 가격에, 특히 진열 상품은 30~40% 인하해 진행될 예정이다. 그외 이탈리아인형 및 본뜬에서도 다양한 특가 상품이 준비되었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오는 10일까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모델이 세일기간 감사품인 평창 동계 올림픽 '장원급제 수호랑 인형'을 선보이고 있다.

지 스위트 봄·여름 이월상품을 60~8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비비안 란제리를 여성팬티 7천 원, 브래지어 2만원 등 다양한 란제리를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롯데 유통계열사 11개사가 참여한 코리아그랜드페스타에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정기세일을 통해 더욱 다양한 상품을 알찬 혜택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구 기자 rkdtkdrn0913@

경제지표

코스피	↑	2,444.08(+14.50)
코스닥	↑	874.44(+6.48)
원·달러·환율	↑	1,069.50(+0.50)
금리(국고채 3년)	↓	2.16(-0.02)

한국産 초고화질 방송 장비 미국 라스베이저스서 선배

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내 업체와 손잡고 외국 방송사 장비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ETRI는 지난 7일부터 미국라스베이저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방송장비 전시회 '국제 방송 장비 전시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NAB) 2018'에 초고화질(UHD) 방송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12일까지 계속된다

북미 지상파 디지털 방송 규격을 제정하는 표준화 기구(ATSC) 3.0 기반 기술이 핵심이다

방송망을 꾸미기 위한 단일주파수망(SFN), 하나의 안테나로 여러 가구가 TV를 시청할 수 있는 공동시청 안테나 시스템, 계층분할 다중화(LDM)와 스케일러블 영상압축(SHVC)을 결합한 멀티채널 고화질(HD) 기술 등이다

클라우드 시스템 방식의 방송 게이트웨이(GW) 가상화 시스템 기술도 전시했다

/김태엽 기자 esaca@

IPTV·케이블TV 지상파 VOD 월정액 내달 최대 60% 인상

IPTV와 케이블TV의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월정액 요금이 다음달부터 최대 60% 인상될 전망이다

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KBS와 MBC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는 물론 CJ헬로·티브로드 등 케이블TV 사업자에 지상파 VOD 월정액 요금을 8천800원(부가세 포함)으로 올리겠다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KBS, MBC의 VOD 월정액 요금이 IPTV는 6천600원, 케이블TV는 5천5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IPTV가 33%, 케이블TV는 60%에 이른다

지상파 사업자들은 제작비 증가, 지상파 광고 시장의 위축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BS가 지상파 VOD 월정액을 8천800원으로 올린 상태"라며 "KBS와 MBC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파산시 못 받는 돈 5조4천억

저금리에 예금자 돈 몰려...5천만원까지만 보호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4천억원을 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천486명이었다

개인은 6만1천413명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해 32.1%(1만4천908명) 늘었고, 법인은 2천737개로 7.1%(138개) 증가했다

이들은 총 8조5천88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5조4천138억원이었다

2016년 말(4조4천903억원)과 비교하면 9천234억원(20.6%) 증가한 것이며, 2010년 말(6조9천123억원) 이후 최대치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10.7%로 0.6%포인트 올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

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천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예금액은 51조2천883억원을 기록,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우선 저축은행들도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자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 고정이자여신비율은 5.1%를 기록했다

은행들과 비교하면 예금 금리가 높은 것도 예금이 늘어나는 이유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8%로 은행(1.95%)보다 0.53%포인트 높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스팅어, 레드닷 디자인 '최우수'상

현대차 벵쏘·코나, 기아차 브랜드관 '비트360' 본상

현대·기아자동차는 기아 스포츠세단 '스텅어'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Best of Best)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현대 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 '넥센'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 기아 소형 SUV '스토닉'과 경차 '모닝'은 본상(Winner)을 안았다

지난해 6월 말 문을 연 기아차 브랜드 체험관 '비트(BEAT)360'도 '제품 디자인'

인 부문-실내 건축·디자인 분야에서 본상을 받았다. 비트360은 앞서 2월 'iF 디자인상' 2개 분야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상은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해마다 분야별 수상작을 결정한다

현대 첫 고성능 차 'i30N' 유럽서 순항

6개월간 1천700여대 판매...목표치 150% 초과 달성

현대자동차 고성능 라인업 'N'의 첫 번째 모델인 'i30N'이 고성능차의 격전지인 유럽에 상륙해 초반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작년 9월 유럽 시장에 출시된 i30 N은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총 1천741대 판매됐다

지역별로는 독일(981대)에서 1천대 가까이 팔려 총 판매량의 60%를 차지했고 영국(227대), 프랑스(83대), 스페인(37대) 등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고른 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i30 N의 판매실적은 현대차가 내부적으로 잡았던 목표치를 약 150% 초과 달성한 규모로 알려졌다

전체 i30 모델 판매량에서 i30 N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출시 직후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전통적인 독일 브랜드들이 다양한



올해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는 세계 59개국 6천300여개 제품이 출품돼 경쟁을 펼쳤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해에도 6개 차종이 상을 받았다

/이문수 기자 zjk0000@



고성능 모델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시장이다. 소비자 역시 차량의 성능을 간간히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문수 기자 zjk0000@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